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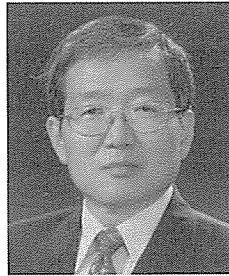
창립 22년 ... 회원 1천5백여명 활동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어떤 시
기보다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많은 관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양질의 진료와
최상의 복지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면 그와 같은 환경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인 의공학은 의학과 공학
의 경계에 위치한 학문으로 의학의 지
식과 공학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의료
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공학쪽으로 피드백시켜 공
학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학
문이다.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medical 혹은
biomedical engineering이라고 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의공학, 의용생체공
학, 의학공학 등으로 부르고 있다.

77년 한일심포지엄 계기로

의공학분야는 미국, 일본, 영국을 비
롯한 선진국에서 1950년대 말을 전후
로 시작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1977
년 대한전자공학회에 의용전자 및 생
체공학 전문연구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에 한일의용생체공학 심포지엄을 개
최하여 학계에 큰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를 시발점으로 국내에서 의공학 전
문학회 창립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
되었을 뿐 아니라 1978년에는 KIST
에서 의공학기술분야를 국책연구과제
로 선정하여 국내의 현황조사 및 협동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와같은 여건



尹亨老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속에서 1979년 3월에 KIST 제3 회의
실에서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칭) 창
립 준비위원회 구성논의가 있었으며
그 후 의학계와 공학계 준비위원들의
회합을 거쳐 1979년 7월 21일 서울대
학교 소강당에서 학계, 산업계, 연구
소 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사들이 참
석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열려 오늘날
의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탄생하게 되
었다.

본 학회는 창립당시 1백40명의 규모
에서 22년이 지난 현재 회원수 1천5백
명을 갖는 대형 학회로 성장하였으며,
학문연구도 다양화되어 의용계측, 재
활공학, 의료정보, 인공장기, 생체재
료 등의 분야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
며 그 연구결과를 학술논문지인 「의공
학회지」에 게재하여 현재 22권째 발간
하고 있다.

6개 위원회·2개 지부로 운영

학회의 주요 사업은 이사회의 심의

를 거쳐, 6개의 위원회(학술, 편집, 교
육, 정보, 산학협력, 국제협력)와 2개의
지부(중부, 영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본 학회의 학술활동은 매년
2회에 걸쳐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춘계 학술대회는 주로 지
방에 위치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개최되며, 추계 학술대회는 서울 소재
대학 혹은 관련 기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학술대회를 통해 특강주제를 설
정하여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
청하여 튜토리얼이나 심포지엄, 연구
자들의 연구논문 발표, 및 의료기기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공학회
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여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의공학학술대회에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날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의
공학회를 국내에 유치하여 참여한 1천
여명의 국내외 학자들에게 우리 학회
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를 갖게 되었다. 또한 2006년 세계 의
공학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
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영남
지부와 중부 지부에서도 매년 1~2회
의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각 회원
간의 학문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장
을 만들고 있다. 본 학회의 공식 전문
학술논문집으로 「의공학회지」를 6회/
년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학논

대한의용생체공학회는 1979년 서울대 소강당에서 학계·산업계·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1백40여명의 전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되었다. 올해로 창립 22년을 맞는 이 학회는 1천5백여명의 회원이 등진 대형학회로 성장했다. 학술 등 6개 위원회와 2개 지부를 두고 있는 이 학회는 지난 1999년 창립 20돌을 맞아 아시아태평양 의공학회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양성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창립 20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1999년 11월 10일)

문인용색인(SCI)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수한 연구논문들을 영어로 발간하여 세계에 우리나라의 학문수준을 알리기 위해 영문논문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 의공학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의공학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과 교과과정을 논의 및 기획하는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전국에 퍼져있는 의공학과(6개 대학과 3개의 전문대학)와 연계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병원의 의료장비 관리, 보수 및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회 차원에서 전문기사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1천3백65명의 의공기사를 배출하였으며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전문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시 보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의공학지식을 교육받고 있으며 학술대회시 의공기사분과를 설치하여 의료현장 중심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

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지식화로 대변됨을 인지하여 본 학회에서는 전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00년 학술대회부터는 발표논문을 전자화시켜 이메일로 등록 접수하고 있으며 의공학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자료실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회원들의 학술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공학이란 연구결과를 실용화시켜 인간생활에 유익을 주는 실용학문인 것처럼 의공학분야도 연구결과를 실용화, 산업화시킴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운택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회차원에서 연구자들과 기업체들간의 산학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메디슨 의공학상」도 제정

아울러 1994년부터는 매년 의용공학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된 자와 의료용구 산업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에게 '대한의용생체공학상'을 수여하고 또한 우리나라 의용공학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메디슨의공학상'을 수여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21세기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공학분야도 기술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해나가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 보편화될 기술인 초고속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원격진료시스템의 개발, 비침습적인 방법에 의한 새로운 생체현상계측장비의 개발, 생체기관을 대체할 의료용 신소재 및 인공장기의 개발, 실버사회를 대비한 노인공학 및 재활공학기술의 개발 등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들 기술개발의 중심에서 우리 학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의료계와 산업계의 학회 회원들을 확충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학술대회와 다양한 국제학술위원회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학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회 주관의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의공학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G7의료공학기술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과 산학협동사업 등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21세기 학문연구개발의 가장 중요한 테마중의 하나인 '인류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우리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㉞